

이낙연·정세균 경선연기론 가세...이재명측 “절대 안돼”

최문순 지사 연기론 공개 제기
“백신 접종 일단락 된 후에 해야”
“홍행 도움되는 방법 찾아야”
초선의원 모임은 의제화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재 가열되고 있다. 경선 연기 여부에 따라 각 후보별 유불리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선 재보선에서 당론과 달리, “무리하게 후보를 내 역량을 맞았기 때문에 더는 원칙을 어기면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7일 정가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 등은 '경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선 연기를 언급했다. 당 대선기획단이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 전까지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경선 연기 찬성 주자 측의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조만간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면 정상적 경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선 시기, 방법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연기론을 공개 제기

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선 흥행 실패 우려를 들어 “연기하는 게 맞겠다. 연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흥행할지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도 포럼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문제가 일단락될 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초선, 친문 그룹 일부도 경선 연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앞서 권리당원 일부도 회견에서 경선 연기를 공개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이 지사 측 김병욱 의원은 라디오에서 “경선을 미룬다면 과연 정국회와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하고 정책, 법,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민주당 후보를 일찌감치 선출해 정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선 승리 전략이라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이날 경선 연기론을 전체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운영위원장인 고영민 의원이 밝혔다. 일부 초선이 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건의했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미 각 주자 진영에 몸담은 사람도 상당수인 만큼 초선 전체 이름으로 합치된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경선 일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 일정을 건드리는 순간 룰도 바꾸자는 이야기가 쏟아질 것”이라며 “정해놓은 원칙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자리에 모인 민주 대권주자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등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리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민간 참여해 병영문화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비위 사건들과 관련,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차체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내 비위 사건들이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병사는 병사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 계급에 따른 역할은 분명히 하되, 여기서 비롯된 왜곡된 병영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은 머지않은

시점에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대응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 “101만명 분의 안센 백신 접종을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준석·윤석열 효과? ...국민의힘 지지율 38% '상승가도'

리얼미터 조사...호남 17%로 급등
민주 중도층 지지율 3.7%P 하락

당대표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주안 지지율이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르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변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29.7%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8.3%포인트로 1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 그 밖에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았던 때는 재·보선 직전에 발표된 지난 4월 12일 여론조사로,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4%였다.
일간 지지율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41%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의 지지율은 27.9%였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선호도가 크게 올랐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보다 5.7%포인트 오른 4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불모지인 광주·전라(8.3%포인트 상승, 17.2%)를 비롯, 부산·울산·경남(7.2%포인트 상승, 48.9%) 등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 측은 “이준석 돌풍”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활동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3.7%포인트 빠지는 등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전환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 초반부터 ‘조국 사태’ 논란 재연 등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결과”라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공정평가)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8.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57.9%였다. 공·부정평가의 차이는 19.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주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방미 성과가 희석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권 적합도, 윤석열 35.7%·이재명 25.7%

PNR리서치 여론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해 5일 하루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5.7%로 1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8%였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정세균 전 국무총리 3.7%,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 등 순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은 과반이 넘는 52.1%를 기록해 이 지사(39.5%)를 여유 있게 앞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상 대결에서도 54.9%의 지지를

받으며 이 전 대표(36.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윤 전 총장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지사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이 지사보다 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차등응답 전화조사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율은 3.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